

康津 月南寺址 三層石塔 造成時期와 性格*

진 정 환**

- I. 머리말
- II. 三層石塔의 特徵
- III. 三層石塔의 造成時期
- IV. 三層石塔의 發願者와 性格
- V. 맺음말

I. 머리말

강진 월남사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있는 사지로, 보물로 지정된 삼층석탑과 보조국사 지눌의 제자인 眞覺國師 慧心の 비가 남아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고려시대 慧心(1178~1234)이 창건했다고 전한다.¹ 그러나 1994년 목포대학교의 지표조사,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2011년 이후 수차례의 시·발굴조사 결과,² 삼국시대 백제부터 조선전기까

* 이 논문은 2018년 12월 7일 강진군이 주최한 학술대회 『康津 月南寺 三層石塔의 性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¹ 『新增東國輿地勝覽』卷37 全羅道康津縣佛宇.

² 민족문화유산연구원, 『月南寺址』 I (2015); 『月南寺址』 II (2016); 『月南寺址』 III (2017).

지의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고 있어 기록보다 그 역사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³

월남사는 사지 출토품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볼 때, 그 시작은 『續高僧傳』과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백제 승려 慧顯이 머물렀다는 達拏山의 사원에서였다.⁴ 통일신라시대에는 鳳林山門을 개창한 眞鏡大師 審希(855~923)가 文德연간(888)부터 建寧연간(894~898) 사이에 머물렀던 ‘光州 松溪禪院’으로 탈바꿈한 뒤,⁵ 비로소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월남사로 불리고 크게 중창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백제시기 수막새, ‘松溪寺’銘기와, 眞覺國師碑와 더불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삼층석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작 혹은 사용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앞의 3가지와 달리 삼층석탑의 조성시기는 후백제시기부터 진각국사 생존 시기까지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⁷

그 높이가 8.2m에 달하는 백제계 석탑으로 널리 알려진 것치고, 이처럼 조성시기의 논란이 있는 이유는 월남사지 삼층석탑이 정형성에서 벗어나 있어 조성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 각각은 나름의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 일면 수궁이 가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조성시기 검토 시 조성배경과 더불어 當代 불교미술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는 기존 주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층석탑의 양식 분석을 바탕으로 조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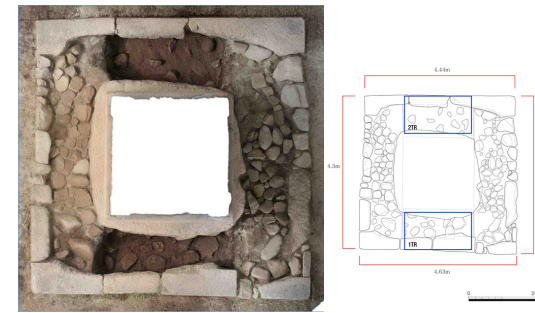
3 김진희, 「康津 月南寺 發掘調査 現況과 成果」, 『康津 月南寺의 伽藍 構造와 眞覺國師 圓照塔碑의 性格』(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7), pp. 1-34.
 4 成春慶, 『全南의 佛象』(學研文化社, 2006), pp. 293-295; 최연식, 「月出山の 觀音信仰」, 『天台學研究』10(2007); 최인선, 「월출산의 불교문화」, 『월출산』(국립나주박물관, 2015); 李炳鎬, 「康津 月南寺址 出土 百濟 瓦의 製作時期와 그 性格」, 『한국중세사연구』44(2016), pp. 36-39.
 5 김용선, 「玄奘 審希 璨幽와 驪州 高達寺」, 『한국중세사연구』21(2006), pp. 120-129.
 6 月南寺와 관련된 금석문 자료와 월남사지 출토 「月南寺」명 기와의 제작시기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월남사’로 지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태, 「康津 月南寺 銘文瓦와 關聯 記錄의 歷史的 性格」, 『康津 月南寺 銘文瓦의 現況과 性格』(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6).
 7 월남사지 삼층석탑 조성시기에 대해, 이병희·정정혁·홍대한 등은 10세기 전반 즉 후백제기로, 엄기표는 고려 초기로, 진홍섭은 12세기, 천득염은 고려중기, 민현구는 진각국사비 음기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1210~1234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병희, 「고려-조선초기 월남사의 위상과 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44(2016); 鄭丁赫 丁珉鎬 千得琰, 「월남사 가람배치에 관한 고찰」, 『百濟研究』68(2018), pp. 109-115; 洪大韓, 『高麗 石塔 研究』(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엄기표, 「康津地方의 佛教文化와 月南寺址」, 『文化史學』41(2014), pp. 153-156; 진홍섭, 『한국의 석조미술』(문예출판사, 1995); 천득염, 『백제계석탑연구』(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민현구,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의 음기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36(1973).

시기별 역사적 배경 검토와 함께 當代 불교미술품과의 비교를 통해, 월남사 석탑 조성시기를 유추해볼 것이다. 아울러, 월남사지 발굴 결과 및 출토품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조성배경과 석탑이 월남사 중창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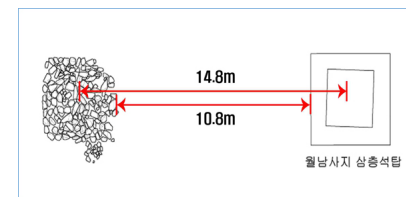
II. 三層石塔의 特徵

월남사지 추정 금당지 남쪽 동편에 있는 삼층석탑은 한 변이 4.4m인 탑구(혹은 지대석) 위에 단층의 기단부, 삼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8.2m로 상당히 큰 편이다. 이 삼층석탑 탑구석 서편에서 10.8m 떨어진 곳에서 서탑 탑구(혹은 지대석)와 동일한 한 변이 4.4m인 정방형의 탑지가 있다. 동탑 중심에서는 14.8m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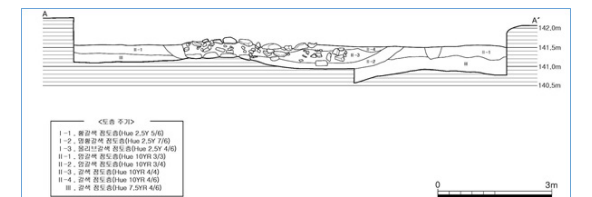
월남사지 삼층석탑 기초부(도 1)는 최근 서편 탑지의 기초부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⁸ 서편 탑지 내부 조사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유추해볼 수 있다.⁹ 서편 탑지(도 2)의 평면은 길이와 너비가 4.4m의 정방형이다. 굴광 기초부는 말각방형에 가까운데, 굴광 상부에서 바닥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역사다리꼴로, 최대 깊이는 60cm이다(도 3). 기초부 내부에서는 승석문이 타날된 백제계 평



도 1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기초부



도 2 강진 월남사지 서탑지



도 3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굴광 기초부

⁸ 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기단부 하부조사 현황」(2018).

⁹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2017), pp. 110-116.

기와편과 나말여초의 어골문 기와편이 주로 확인되어 기초부 조성시기의 상한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탑지에 대해 동탑 탑재로 추정되는 옥개석¹⁰이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형태는 물론 치석수법 등이 달라, 두 탑이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최근의 삼층석탑 하부 조사 결과 두 기의 기초부가 동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鷄龍山 淸涼寺址 五層石塔과 七層石塔처럼¹¹ 규모는 물론 양식이 다른 두 탑이 조성된 사례도 있으며, 風水裨補와 裨補寺塔說에 근거하여 불교미술품으로 산천지세를 보완하기 위해 쌍탑을 조성한 사례도 있어,¹² 월남사지 동·서석탑은 동시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월남사지 삼층석탑 기단하석 외곽에는 다듬은 돌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한 변이 4.4m인 구획이 있다. 이것을 塔區로 여기기도 한다.¹³ 탑구는 통일신라 석탑에서 종종 확인되는데, 慶州 佛國寺 三層石塔의 연화문이 조각된 탑구처럼 지면 위에 설치된 것이 있고, 南原 實相寺 三層石塔이나 陝川 淸涼寺 三層石塔처럼 탑 기단부에 비해 상당히 넓고 높은 단으로 된 경우가 있으며, 大邱 桐華寺 金堂庵 三層石塔과 같이 또 다른 기단처럼 보이는 것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¹⁴ 이러한 탑구는 단순히 구역의 표시에 그치지 않고, 탑을 장엄하기 위한 한 요소였다.¹⁵ 그런데,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탑구로 추정되는 부분은 실상사 삼층석탑처럼 단의 높이가 높지 않고 불국사 삼층석탑처럼 장식성을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이 부재는 탑 장엄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편이다. 설사 조성 당시 탑구를 의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석을 이용하여 평지와 단 차가 거의 없게 조성한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탑구는 탑구 본래의 의미를 간과한 채 단순히 모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월남사지 삼층석탑(도 4) 기단부는 폭이 좁은 대석 위에 여러 장의 석재를 세워 조립한

¹⁰ 1988년 당시 84세 노인이 당시로부터 70여 년 전인 1910년대 탑 2기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추정탑지 발굴조사 약보고서』(2015).

¹¹ 李弘鐘 姜元杓, 『公州 鷄龍山 淸涼寺址 試掘調査報告書』(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1), pp. 1-37.

¹² 朝鮮總督府, 『曹溪山仙巖寺事蹟』, 『朝鮮寺刹史料』上(中央文化出版社, 1968), pp. 282-283.

“仙巖寺 구역 안에는 한 구의 鐵佛과 두 기의 寶塔, 세 기의 浮屠가 있다. 이것은 道詵國師가 절을 개창할 때 지세가 등지고 달아나는 것을 진정케 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¹³ 엄기표, 앞의 논문(2014), p. 153.

¹⁴ 陳政煥, 『桐華寺石塔에 對한 考察』, 『桐華寺 銀海寺의 佛敎美術』(國立中央博物館, 2007a), pp. 68-93.

¹⁵ 洪永鎬, 『韓國 三重基壇石塔의 出現과 展開에 關한 試考』, 『文化史學』10(1998), pp. 51-74.



도 4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고려 12세기 중엽, 높이 7.0m, 보물 제298호, 전남 강진
도 5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백제 7세기, 높이 8.33m, 국보 제9호, 충남 부여



도 6 서천 비인 삼층석탑, 고려 전기, 높이 6.2m, 보물 제224호, 충남 서천
도 7 군산 죽산리 삼층석탑, 고려 전기, 높이 5.5m,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6호, 전북 군산
도 8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고려 후기, 높이 6.0m, 보물 제167호, 전북 정읍

후 역시 여러 장의 석재로 된 갑석을 덮은 단층기단이다. 맨 하단의 대석은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도 5), 舒川 庇仁 三層石塔(도 6) 등 충청지역 백제계 석탑에서 볼 수 있는 별석의 지대 석+기단하석 구성과 달리 기단하석이 하부를 정밀하게 다듬지 않은 1장의 돌만 있다. 그러나 월남사지 석탑의 이러한 특징을 群山 竹山里 三層石塔(도 7)과 井邑 隱仙里 三層石塔(도 8) 등

전라지역 백제계 석탑에서 볼 수 있어 지역적 특성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군산 죽산리 삼층 석탑이나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의 그것은 월남사지 삼층석탑 기단하석에 비해 상당히 넓어,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기단하석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로써도 모방 시 부재를 생략했거나 축소·변형시켰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기단하석에는 얇은 흙을 새겨 面石과 隅柱를 세우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우주와 면석을 구분하여 별석으로 조성하였으나,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일부 석재는 면석과 구분하기 위해 우주 부분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한편, 우주와 면석 연결 부분을 낮게 치석하였는데, 마치 목조건축물의 ‘귀솟음기법’을 차용한 듯하다. ‘귀솟음기법’은 지붕의 처마를 들어 올려 변으로 갈수록 처저 보이는 착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경우 기단 폭이 좁아 기단 갑석의 들림 현상이 두드러져 불안정해 보인다. 이는 석탑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장인, 즉 木匠이 이 탑 조성을 주도 혹은 기단부 조성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생각된다.

1층과 2층 탑신은 여러 장의 석재를 사용한 ‘가구식 결구수법’을 보이는데, 1층의 경우에는 네 귀에 우주석과 면석 일부를 새긴 돌을 세우고 그 사이에 면석을 끼워 넣는 소위 ‘귀틀형 결구법’을 보인다.¹⁶ 반면, 2층은 우주와 면석이 한꺼번에 새겨진 돌을 엇물리게 한 ‘판석형 결구법’을 보인다. 석재 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단부, 1층 탑신, 2층 탑신 등의 구성이 각기 다른 결구법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다양한 장인 집단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1장의 석재로 된 삼층 탑신은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1·2·3층 모두 평박하면서 폭이 좁고, 윗면은 다른 백제계 석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동마루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합각부가 약간 들려있다. 옥개받침은 1층과 2층의 경우 弧角弧形의 3단 받침이며, 삼층은 弧角形의 2단 받침이다. 이 석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높으면서 弧形을 이룬 옥개받침은 전형적인 백제계 석탑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백제계 석탑과 달리 옥개석 상부에는 옥개받침과 마찬가지로의 높은 角形의 받침이 있는데, 1·2층은 3단, 3층은 2단으로 되어 있다. 다만, 군산 죽산리 삼층석탑처럼 2층 탑신받침이 높은 각형의 2단을 이루고 있는 사례도 있어, 백제계 석탑 재현 과정에서 변형·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한편, 폭이 좁은 옥개석을 중심으로 동일한 단수의 석재가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이 석탑을 모전석탑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옥개석만 다른 백제계 석탑과 마찬가지로

¹⁶ 여기서 사용한 ‘귀틀형 결구법’과 ‘판석형 결구법’은 신용철이 제시한 용어이다. 申龍澈, 『統一新羅 石塔 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p. 136.

로 넓게 처리하였다면, 그 어색함이 상당히 반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옥개부에서 볼 수 있는 통례를 벗어나는 특징들은 기단부 및 탑신과 마찬가지로 옥개석의 기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방 시 축소·과장되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상륜부는 단순한 형태의 노반 대신 탑신과 옥개부를 모방한 것과 같은 노반 위에 복발과 보개를 올린 형태이다. 이 탑과 유사한 노반은 서천 비인 삼층석탑¹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백제계 석탑과 상당 부분 공통점을 공유한다. 공통점을 열거하자면, 첫째, 탕주가 모각되지 않은 단층기단이다. 둘째, 옥개석이 평박하며, 합각부의 반전이 있다. 셋째, 3단 내외의 높은 옥개받침을 갖추고 있다. 차이점도 보이는데, 첫째, 기단 또는 1층 탑신에서 우주와 면석을 별석으로 조립한 백제계 석탑과 달리 비정형적으로 우주와 면석 일부를 한 돌에 치석하였다. 둘째, 기단 우주의 귀솟음이나 우동마루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각부의 반전을 둔 점 등 불필요한 목탑기술이 치석 및 조립 시 활용되었다. 셋째, 다른 백제계 석탑과 달리 옥개석의 폭이 좁아 마치 모전석탑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의 공존은 “단순 모방에 따른 변형” 내지는 “조탑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탑에서 볼 수 있는 모방·변형, 조탑 원리의 부족 등은 모본이 조성된 시기라 지역·장인·발원자 등의 변수를 달리할 경우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령, 월남사지 석탑이 백제시기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지역 장인이 모방하여 조성하였다고 해도 일정 정도는 논리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 석탑의 양식적 특징만으로 곧 조성시기를 판정할 수 없고, 동시기 다른 불교미술품과 조성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나 그 조성시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Ⅲ. 三層石塔의 造成時期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와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조성시기로 크게 百濟時期, 統一新羅期, 後百濟期, 高麗時代 등 4시기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월남사지 삼층석탑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 서편 탑지 기

¹⁷ 舒川庇仁 石塔을 연구자에 따라 오층 또는 삼층으로 보는데, 삼층 옥개석 위 부재에 탑신받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탑신이 아닌 상륜부를 구성하는 부재로 여겨지므로, 본고에서는 삼층석탑으로 지칭하겠다.

¹⁸ 엄기표, 앞의 논문(2014), p. 154.

초부에서 백제계 평기와편과 함께 나말여초 기와의 특징인 어골문 기와가 함께 확인되어, 백제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겠다.

1. 統一新羅期 造成 檢討

월남사지 삼층석탑이 앞 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백제 혹은 백제계 석탑을 모방하여 조성하였다면, 백제를 통합한 통일신라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전라지역에 조성된 불교미술품은 五嶽 중 하나인 지리산과 九山禪門 중심으로 조성되었을 뿐이며, 그나마도 통일신라 중앙의 조형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¹⁹ 충청지역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신라의 백제 병합 직후에 조성된 燕岐地域의 佛碑像을 제외하고는, 8세기 이후에는 백제 양식을 재현하거나 모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즉 통일신라시대 월남사지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백제 석탑을 모방한 석탑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극적인 촉발 요인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이 審希의 송계선원 주석이다. 우선 심희가 舊가야 출신 인사라는 것에서 백제 석탑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조영에 심희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차치하고, 명망 있는 선사의 주석이 지역민 또는 관리를 추동시켜 탑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선사들의 이거와 불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심희가 머물렀던 ‘송계선원’ 역시 탑을 조성하는 등의 불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먼저, 실상사 개창조인 홍척과 그의 제자인 수철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홍척은 820년대 후반에 귀국하여 실상산문을 개창하는데, 곧바로 흥덕왕에 의해 경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²⁰ 현재의 실상사는 홍척이 입적한 840년 이후 그의 제자인 수철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²¹ 慧昭 역시 하동 쌍계사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사찰을 전전한 것뿐 아니라 민애왕의 의탁을 거절한 것에서 알 수 있듯,²² 당시 선사들에게 사원은 의례의 집행 장소라기보다, 수행의

장소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²³ 玄昱 역시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실상사→혜목산암자→고달사 순으로 옮긴다.²⁴ 현욱이나 迦智山門을 개창한 體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²⁵ 조탑 또는 조상 등의 불사는 왕실 등 후원세력과의 결연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 유학하고 귀국한 선사들은 선종의 宗旨를 좇아 塔像 등을 먼저 갖추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좋은 수행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렇게 초기 선종 사원이 참선하는 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南宗禪派의 사찰 조성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북종선파의 선사들은 기존 사원에 들어가 수도한 반면, 남종선파의 선사들은 百丈懷海(749~814)의 『百丈清規』에 따라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만을 세웠다. 홍척, 혜소, 현욱 등은 모두 남종선을 수학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을 잘 알았을 것이며, 귀국 후 충실히 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심희는 868년 현욱의 법을 이었으며, 873년 구족계를 받는다. 이후 명산을 두루 찾아 수행하고, 888년 무렵부터 광주 송계선원에 자리 잡게 된다.²⁶

심희는 『백장청규』를 잘 알고 이를 실천하였던 현욱의 제자였고 송계선원에 머물 당시 국왕이나 호족의 후원을 받지 못했던 만큼 그가 머물던 송계선원 역시 법당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월남사가 통일신라시대 송계선원이 되었다면, 월남사지 삼층석탑과 같은 塔像을 조성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後百濟期 造成 檢討

다음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후백제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후백제 왕 견훤이 백제 계승을 표방한 만큼 백제시기의 지방 사원 가운데 하나였던 월남사터에 백제를 연상시키는 석탑을 조성하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먼저, 후백제가 조성된 석탑을 살펴보겠다. 후백제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석

¹⁹ 陳政煥, 「南原池塘里石佛立像考察」, 『東岳美術史學』8 (2007b), p. 112.

²⁰ 崔致遠撰 崔英成註解, 『註解 四山碑銘』(亞細亞文化社, 1987), pp. 265-266.

²¹ 陳政煥,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진북사학』53 (2018), pp. 25-30; 李智冠, 「河東 雙谿寺 眞鑑禪師 大空靈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pp. 143-146.

²² 李智冠, 「河東 雙谿寺 眞鑑禪師 大空靈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pp. 143-146.

²³ 陳政煥, 「統一新羅 鼓腹形石燈과 實相山門」, 『진북사학』42 (2013), pp. 86-87; 鄭炳三, 「深源寺 秀澈和尚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p. 168.

²⁴ 『祖堂集』(K. 1503) 卷17 東國慧目山和尚.

²⁵ 金南允,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寶林寺 毘盧舍那佛造像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p. 313, pp. 58-59.

²⁶ 南東信, 「鳳林寺 眞鏡大師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pp. 223-224; 李智冠, 「驪州 高達院 元宗大師 慧眞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2)』(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p. 33.

탑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이다.²⁷ 왕궁리 오층석탑의 조성시기 검토 시 주목할 부분은 평박한 옥개받침과 높은 단층기단이다. 평박하고 전각의 반전이 있고 우동마루가 부각된 옥개석은 백제석탑인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유사하다.²⁸ 반면 기단부의 구성과 결구수법은 9세기 후반 聞慶·尙州一帶를 중심으로 조성된 석탑에서 주로 볼 수 있는 架構式 單層基壇과 동일하다.²⁹ 즉 왕궁리 오층석탑은 가구식 단층기단이 등장한 9세기 후반~후삼국기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단서는 기단부 심초석에서 나온 금동불입상이다. 이 금동불입상은 통일신라 불상 양식의 바탕 위에 唐末五代 불상 양식의 영향을 받은 9세기 말~10세기 초의 불상 가운데 하나이다.³⁰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에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확인되기도 하였다.³¹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왕궁리 오층석탑은 후삼국기 후백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후백제기에 조성된 봉림사지 석조삼존불과 동시기에 조성된 오층석탑과 견훤의 복전인 관해가 주석했던 화엄사 동오층석탑은 백제탑을 재현하려 한 왕궁리 석탑과 달리 통일신라 일반형 석탑을 계승하고 있어, 후백제 내 다양한 석탑 양식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³²

앞서 언급한 석탑들은 후백제 왕실에서 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백제 계승의식을 표방한 만큼 백제 불교미술품을 연상시키는 일부 요소들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기본적으로 후백제 왕실의 불교미술품은 통일신라 불교미술품 양식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³³ ‘모방’에 따라 형식미가 해체된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결코 후백제 왕실의 후원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후백제 호족의 불교미술품은 통일신라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것을 볼 때,³⁴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후백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²⁷ 陳政煥, 「後百濟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11 (2010), pp. 165-167.

²⁸ 천득염, 앞의 책 (2000), pp. 48-49; 陳政煥, 「全北地域 百濟樣式 石塔에 對한 一考察」, 『國立公州博物館紀要』3 (國立公州博物館, 2003), pp. 116-129.

²⁹ 그 이유는 문경·상주일대가 견훤의 출생지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견훤의 통일신라 문화에 대한 인식, 92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북 북부지역에서의 행보,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의 성격 등으로 볼 때, 견훤은 기본적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바탕에 두고 백제 불교미술품의 요소를 결합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³⁰ 崔聖銀,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王宮里 五層石塔 출토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58 (1997), pp. 5-24.

³¹ 전용호, 「익산 왕궁리 유적의 사찰 운영에 대한 재검토-왕궁 탑하부 유구를 중심으로-」, 『歷史學研究』60 (2015), pp. 64-77.

³² 陳政煥, 앞의 논문 (2010), pp. 165-170.

³³ 陳政煥, 「後百濟의 佛教美術과 그 影響」, 『진북사학』47 (2015a), pp. 37-48, pp. 56-61.

³⁴ 陳政煥, 위의 논문 (2015a), pp. 48-56, p. 61.



도9 장흥 용화사 석불좌상, 후삼국기(태봉) 10세기 전반, 높이 2.5m,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46호, 전남 장흥



도10 해남 대홍사 북미륵암 마애불좌상, 후삼국기(고려) 10세기 전반, 높이 4.2m, 국보 제308호, 전남 해남

이와 더불어, 후삼국기 전남 서남일대, 즉 나주일대의 역사적 배경과 이 지역에 조성된 불교미술품을 통해서도 월남사지 삼층석탑이 후백제기에 조성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나주의 호족세력은 901년 견훤이 이 지역을 공략하자 궁예에게 귀부하였으며 903년에는 궁예가 왕건을 보내 나주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³⁵ 이때 나주일대의 10여개의 군현이 마진(태봉)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강진지역은 후백제와 태봉세력과의 접경지역이 되어 대규모 佛事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³⁶ 한편, 912년 궁예가 직접 참여한 덕진포 해전 이후 태봉의 점령지역은 935년 태조가 후백제에게 잃었다고 한 40여 군현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912년 당시 강진 무위사의 선각대사가 궁예에게 귀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³⁷ 월남사지 일대를 포함한 강진일대는 태봉의 완벽한 지배 아래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 건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즉 궁예와 왕건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던 900년대부터 930년까지 백제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조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월남사지 석탑에서 태봉의 불상의 특징인 장식성이 극대화된 長興龍華寺石佛坐像(도9)이나, 고려 초 불상의 특징인 건장함이 극대화된 海南大興寺北彌勒庵

³⁵ 『高麗史』卷1, 世家1903年1月.

³⁶ 『高麗史』卷92, 列傳5, 庚黔淵.

³⁷ 李智冠,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偏光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pp. 272-282.



도 11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 후삼국기(후백제) 10세기 전반, 높이 5.38m, 보물 제462호, 전남나주

磨崖佛坐像(도 10)과도 양식상 친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³⁸

그렇다면, 후백제가 이 지역을 탈환한 930년대 이후부터 고려가 재탈환하는 935년까지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백제 불상인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도 11)을 통해 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석불입상은 궁예의 초상적 조각상이라는 견해도 있다.³⁹ 그런데, 이 불상은 통일신라 8세기~9세기 초 금동불입상과 유사한 5등신의 신체 비례를 보이고 있고, 얼굴과 신체의 양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금동불의 전형적인 특징인 작은 손발과 볼록하게 조각한 옷주름을 재현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신라 전성기 금동불과 유사한 석불을 조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견훤이 신라 중앙 문화에 대해 동경하였고, 이를 927년 경주 침공 이후 뛰어난 장인을 포로로 삼으면서 실행할 장인이 확보되었기 때문

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특히 통상의 불상과 달리 후백제의 새로운 점령지인 나주 읍기를 향해 북향하고 있다는 점 역시 후백제 조성을 뒷받침한다.⁴¹ 즉 930년 이후 강진일대에서 후백제가 석탑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백제 복고양식의 석탑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월남사지 석탑은 후백제기에 조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후삼국기 강진일대는 차례로 태봉이나 고려, 그리고 후백제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고, 후백제 영역이 된 930년 이후에는 후백제가 추구하는 조형미가 통일신라 양식을 바탕으로 백제적 요소를 일부 결합하던 것에서 순수 통일신라 양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월남사지에서 백제 석탑을 모방한 석탑을 조성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³⁸ 陳政煥, 「後百濟佛教彫刻의 對外交渉」, 『百濟研究』 61 (2015b), pp. 160-165.

한편, 성춘경은 대흥사마애불의 조성시기를 9세기 말로 추정하였으며, 최성은은 태봉의 불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성춘경, 「전남의 불상」(학연문화사, 2006), pp. 76-105; 崔聖銀,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先史와 古代』 37 (2012), pp. 249-270.

³⁹ 정성권,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의 조성시기와 배경」, 『新羅史學報』 31 (2014), pp. 225-272.

⁴⁰ 申虎澈, 「甄萱의 出身과 社會의 進出」, 『東亞研究』 17 (1989), pp. 83-102; 陳政煥, 앞의 논문 (2010), pp. 180-182.

⁴¹ 陳政煥, 앞의 논문 (2015a), p. 56.

3. 高麗時代 造成 檢討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교 미술품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통일신라 불교미술을 계승한 전통양식, 고려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양식, 그리고 삼국시대 불교미술품을 재현하려고 한 복고양식 등이 그것이다.⁴²

백제 복고양식은 우리가 잘 아는 석탑에만 머물지 않고, 석불에서도 확인된다. 백제 복고양식의 석탑은 群山竹山里 三層石塔, 金堤歸信寺 三層石塔, 井邑隱仙里 三層石塔, 扶餘長蝦里 三層石塔, 舒川庇仁 三層石塔, 公州鷄籠山 靑涼寺址 五層石塔 등이다.⁴³ 이러한 백제 복고양식 석탑(혹은 ‘百濟系 石塔’)들은 통일신라 일반형 석탑에 비해 부재의 수가 많고 탑신에 비해 낮은 단층기단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탕주에 목조건축물의 전형적인 형식인 ‘민흘림수법’과 ‘안솔림 현상’이 적용된 점이나 옥개석은 넓고 평박하고 4장 혹은 8장으로 구성된 점 역시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시기 백제 석탑의 모방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백제 석탑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群山竹山里 三層石塔은 미륵사지 석탑에만 볼 수 있는 昌枋平枋·引枋과 높은 각형 옥개받침을 보인다. 이는 곧 죽산리 삼층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을 직접적으로 모방·재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井邑隱仙里 三層石塔 역시 2층 이상의 탑신에 비해 유난히 높은 초층탑신을 보이는데, 이 역시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과 같다. 반면, 舒川庇仁 三層石塔과 鷄籠山 靑涼寺址 五層石塔(도 12)은 뚜렷한 안솔림 현상, 탑신 상부의 別石部材, 弧形(四菱形)의 옥개받침 등 정립사지 오층석탑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⁴⁴

뿐만 아니라, 백제 불상을 모본으로 한 석불 역시 충청·전라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天安 龍華寺 石



도 12 계룡산 청량사지 오층석탑(앞), 고려 전기, 높이 4.8m, 보물 제 1284호, 충남공주

⁴² 陳政煥, 「高麗前期佛教石造美術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pp. 175-189.

⁴³ 陳政煥, 앞의 논문 (2015a), p. 62.

⁴⁴ 陳政煥, 앞의 논문 (2015a), pp. 62-63.



도 13 정읍 용흥리 석불입상, 고려 전기, 높이 1.7m,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7호, 전북 정읍
 도 14 남원 지당리 석불입상, 고려 전기, 높이 3.49m,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4호, 전북 남원

佛立像과 井邑 龍興里 石佛立像(도 13)과 南原 池塘里 石佛立像(도 14)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⁴⁵ 이렇게 백제 복고양식 불교미술품이 조성된 곳은 크게 백제 때부터 불교문화가 꽃 피웠던 수도, 지방거점도시, 지방 사원이 있던 곳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⁴⁶

이러한 복고양식 불교미술품은 후삼국 통일 후 통일 지향적 사회 분위기와 광종의 왕권 강화책으로 10세기에는 조성되기 어려웠으며, 10세기 말 거란의 침입 이후 고려 왕실에 대한 민심 이반을 틈타 탄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현종이 1018년 江南道와 海陽道를 합쳐 전라도를 설치한 이후 후백제에 대한 歸巢意識이 확대된 이후 급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의 불교미술품은 통일 이후부터 11세기 1/4분기까지는 전통양식·신양식·복고양식을 불문하고 괴체성이 극대화된 형태미를, 11세기 2/4분기~3/4분기에는 괴체성이 약간 둔화되면서 다른 양식과 절충되는 양상을 보인다.⁴⁷ 11세기 4/4분기 이후에는 조성 계층에 따라 양식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왕실 및 귀족이 발원할 경우에는 고려 전기의 괴체적 조형미를

⁴⁵ 鄭恩雨, 「燕岐 佛碑像과 忠南地域의 百濟系 佛像」, 『百濟文化』 32 (2003), p. 96; 陳政煥, 「井邑地域 百濟系 佛象 考察」, 『文化史學』 27 (2007c), pp. 467-489; 앞의 논문 (2007b), pp. 103-123.

⁴⁶ 陳政煥, 앞의 논문 (2015a), p. 66.

⁴⁷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 175-186.

탈피하여 단정한 형태와 적절한 비례를 보이는 한편 장식과 기법도 세련되었지만, 민이 발원한 경우에는 비례가 깨지고 다양한 양식이 무분별하게 혼합되는 토착화의 길을 걷는다.⁴⁸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백제 복고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앞서 열거했던 다른 백제계 석탑과 달리 백제시대 석탑을 직접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으며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형’, ‘양식의 혼용’, ‘조형원리의 몰이해’ 등 급격히 퇴화된 양상을 볼 때, 11세기 4/4분기 이후에 조성된 불교미술품들과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무신정변 이후에는 지방관 파견의 확대,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산, 대규모 유이민의 발생 등으로 대규모 향도결사의 조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11세기 4/4분기~12세기 3/4분기 사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IV. 三層石塔의 發願者와 性格

Ⅲ장에서 동시기 불교미술품과 조성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11세기 4/4분기~12세기 3/4분기 사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 내지 월남사지 발굴품은 무엇이 있을까?

암키와와 수막새는 제작기술 및 문양의 변화에 따라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하나, 특성의 존속시기가 꽤 길어 구체적인 조성시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반면, 명문와는 발원자, 장인, 조성시기 등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副)戶長趙銘 기와(도 15)와 「○○元年己巳北舍瓦草銘 기와(도 16)를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 15 강진 월남사지 출토 「(副)戶長趙銘 기와(도 15)」 명기와(도 15)와(도 16)를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 16 강진 월남사지 출토 「○○元年己巳北舍瓦草銘 기와(도 16)」 명기와(도 16)를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⁴⁸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 188.

「(副)戶長趙銘 기와는 폭이 넓은 격자문에 ‘副戶長趙’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부호장은 吏職의 직위 가운데 하나이며, 조씨는 성씨인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道康의 土姓으로 언급된 그 趙氏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副戶長’이라는 직위이다. 부호장은 지방 군현의 지배세력 가운데 하나로 ‘長吏’로 불리는 ‘戶長’ 등과 함께 군현의 운영을 담당했던 읍사의 최상위층에 속하였다.⁴⁹ 호장층은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大等, 堂大等과 같이 중앙의 관위를 받는 지방의 호족이었으나, 983년 성종의 吏職 개편 이후 국가체제 안에 완전히 편입된다.⁵⁰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호장은 지역의 租稅와 貢賦를 중앙으로 전달하거나, 지역민을 동원하여 각종 役事를 실행하거나 유사시 지역민을 거느리고 자신의 관할지역을 지키기 위해 전투지휘관이 되기도 하였다.⁵¹ 뿐만 아니라, 성황제 등 각 군현의 제사나 각종 불교 의례를 주도하기도 하였다.⁵² 한편, 11세기 중엽까지 호장층은 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 漆谷 淨兜寺址 五層石塔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규모 불교미술품 조성을 주도하기도 하였다.⁵³ 이때에는 호장 일개인의 이름을 앞세운 경우라 할지라도 지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군현적인 향도결사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형 불교석조미술품 조성 시 호장 또는 부호장은 거군현적인 향도결사의 대표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⁵⁴

그런데, 호장층이 이렇게 향도결사의 대표로 불사를 주도할 수 있었던 시기는 監務가 파견되기 전까지이다. 11~12세기 유망민이 급증하자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 왕실은 감무를 파견한다.⁵⁵ 감무 파견 이후, 그전까지 지역사회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호장층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감무의 파견 목적이 유망민에게 안착시켜 租稅와 役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⁵⁶ 호장층이 그 이전처럼 대규모 役事 내지 佛事

49 尹京鎮, 「高麗前期 鄉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 『한국문화』20 (1997), p. 127.

50 陳政煥,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新羅史學』32 (2014), p. 367.

51 김갑동, 「고려시대의 戶長」, 『한국사학보』5 (1989), pp. 214-215.

52 한기문,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 유적을 중심으로-」, 『복원사림』29 (2011), pp. 45-55.

53 陳政煥, 앞의 논문 (2014), pp. 363-372.

54 陳政煥, 앞의 논문 (2014), pp. 375-379.

55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元年4月.

“庚寅 詔曰 頃因所司 奏以西海道 儒州 安岳 長淵等縣 人物流亡 始差監務官 使之安撫 遂致流民漸還 產業日盛 今牛峯 兎山 積城 坡平 沙川 朔寧 安峽 僧嶺 洞陰 安州 永康 嘉禾 青松 仁義 金城 堤州 保寧 餘尾 唐津 定安 萬頃 富闊 楊口 狼川 等郡縣 人物亦有流亡之勢 宜准儒州例 置監務招撫”

56 이인재, 「고려 중후기 지방제 개혁과 감무」, 『外大史學』3 (1990), pp. 131-135.

에 지역민을 차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월남사지가 속한 지역은 고려시대 道康郡인데, 명종 2년(1172년) 감무를 파견한다.⁵⁷ 明宗 2년 당시 감무의 성격에 대해서 무인정권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⁵⁸ 고려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부임했던 만큼 1170년 이후에는 도강군의 호장층의 주도로 월남사에서 석탑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차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석탑 양식 상 조성의 하한을 12세기 3/4분기로 본 것과는 일치한다.

석탑 조성 가능 시기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자료가 바로 「○○元年己巳北舍瓦草銘 기와이다. 이 기와는 「(副)戶長趙銘 기와와 함께 3호 건물지에서 주로 확인되었는데, 제작기법상 1cm 가량의 폭을 가진 1조의 흙이 있어,⁵⁹ 2종의 명문와가 동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 기와가 당시 보편적인 시기 표현 방식이 ‘연호’+‘기년’+‘간지’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元年’ 앞에 결실된 부분은 연호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려시대 기사년 가운데, 改元한 시기는 3시기뿐이다. 그 첫 번째는 969년으로, 遼나라의 保寧元年이다. 그런데, 960년 峻豐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던 광종이 963년 송나라 연호로 복호하였기 때문에 이 연호가 쓰일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는 1149년으로 金나라의 天德元年이다.⁶⁰ 고려는 1126년 이미 金나라의 번국을 자칭하였으므로, 1149년에는 金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던 시기였다. 마지막으로 1209년의 金나라 大安元年을 들 수 있다. 1212년 金나라로부터 ‘고려국왕’의 책봉 조서를 받는 사례가 있고⁶¹ 1224년 金나라 연호 사용을 정지하였다는 기록이 있어,⁶² 1209년도 검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57 『高麗史』卷57 志11 地理2 全羅道 靈巖郡

58 김병인.이바른, 「고려 명종대 監務 파견의 정치적 성격」, 『한국중세사연구』29 (2010), pp. 335-370.

59 이인숙, 「康津 月南寺 出土 銘文瓦의 기와사적 性格」, 『康津 月南寺 出土 銘文瓦의 現況과 性格』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6), pp. 95-96.

60 金나라 海陵王이 1149년 12월 丁巳日에 熙宗을 죽이고 연호를 ‘皇統’에서 ‘天德’으로 개원하였으므로, 이 연호가 곧바로 고려에 전해졌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高麗史』를 볼 때, 天德으로 改元 당시 萬壽節을 축하하기 위한 고려 사신 韓靖이 金 皇都에 있었으며(『高麗史』卷17 世家17 毅宗 3年 11月 丁未.), 이들을 통해 곧바로 고려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예천 개심사 석탑 조영 시 미륵향도 등이 참여한 시기가 3월인 점이나 한산 지현리 삼층석탑, 안성 장명사지 석탑 등이 3~4월에 건립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군현적 향도결사의 석탑 조영 시작 시기는 주로 농한기인 겨울과 초봄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1149년 겨울 월남사 석탑 조영 시작 무렵 혹은 기와 제작 무렵 金의 개원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바뀐 연호를 기와에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1 『高麗史』卷21 世家21 康宗元年 7月 壬申.

62 朴漢男, 「한국사 15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3), p. 360; 羅瀟, 『寶慶四明志』卷6, “高句麗國. 嘉定十七年高麗乃棄金正朔以甲子紀年”



도 17 나주 북암리 3호기와가마 출토 기와

그런데, 「(副)戶長趙」銘과 「○○元年己巳北畝瓦草」銘 두 명문와의 기법상 제작 추정 시기가 1028년~1300년으로 폭이 넓어,⁶³ 「○○元年」은 天德元年과 大安元年 모두 가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 다른 불교미술 양식과의 비교 및 발원 주도 세력인 호장층의 활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天德元年 즉 1149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고고학 자료가 있는데, 바로 「戶長趙」銘 기와와 동일한 羅州 伏岩里 3호기와가마 출토 기와(도 17)가 바로 그것이다.⁶⁴ 그런데, 이 3호기와가마에 대한 考古地磁氣學의 연대 추정 결과가 1090년~1209년임이 밝혀졌다.⁶⁵ 특히, 그 중심연대를 월남사지 삼층석탑 조성시기로 밝힌 1149년과 불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 1150년으로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앞서 열거했던 개심사지와 정도사지 석탑을 비롯하여 호장을 중심으로 거군현적 향도결사가 조성에 참여한 불교미술품의 경우, 거의 모두 ‘국가태평’, ‘전쟁종식’, ‘백성평안’, ‘오곡풍년’ 등을 발원 목적으로 한다.⁶⁶ 비록, 월남사지 삼층석탑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1100년을 전후한 시기는 대규모 전쟁은 없었지만, 자연재해⁶⁷와 전시과 토지분급제의 붕괴에 따른 대규모 농장의 확대, 이

⁶³ 이인숙, 앞의 논문 (2016), p.96.

⁶⁴ (財)全南文化財研究院, 『羅州 伏岩里 遺蹟 會津里 栢下遺蹟(A구간)』((財)全南文化財研究院·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pp.74-83; 차인국, 「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 『중앙고고연구』22(2017), pp.4-9.

⁶⁵ 성형미, 「나주 북암리 유적 기와가마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羅州 伏岩里 遺蹟 會津里 栢下遺蹟(A구간)』(2013), pp.407-416.

⁶⁶ 陳政煥, 앞의 논문 (2014), pp.367-372.

⁶⁷ 1083년, 1128년 재해 때문에 罪人을 赦免하였다. 특히, 1128년에는 名山大川에 望祭를 지내는가 하면 元曉義相道誥에게 勸작을 추증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1130년에도 재해로 산천과 종묘사직에 제사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

에 따른 유망과 무퇴행위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⁶⁸ 월남사지 삼층석탑 조영은 부호장 趙某를 대표로 하는 거군현적 향도결사가 이러한 지역사회 위기를 佛力으로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 18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과 도강현 읍치

있어 주목된다.⁶⁹ 당시 고려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강군의 민들은 월출산은 오관산의 창바위와 마찬가지로 三災가 일어날 만한 곳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지세를 누르거나 복돋기 위해 불상, 탑, 당간 등을 조성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⁷⁰ 실제로 월출산과 유사한 산세를 보이는 계룡산에도 월남사지와 마찬가지로 소위 계룡산 남매탑이라고 불리는 2기의 석탑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월출산의 나쁜 기운이 도강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남사지에 석탑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도 18).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월남사지 삼층석탑 조성배경 및 성격을 재구성해보면, 1100년대 전반 도강군의 민들은 자연재해로 토지가 황폐화되고 전시과 체제의 붕괴로 경

이와 더불어, 裨補 寺塔說에 근거하여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월출산은 산세가 크고 기암괴석이 빼죽빼죽 솟아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지세에 대해 고려인들은 삼재가 일어날 곳으로 지목한 기록이

다. 이로써 석탑 조성 직전 자연재해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卷9 世家9 文宗37年4月; 『高麗史』卷15 世家15 仁宗6年4月; 『高麗史』卷59 志13 禮1 吉禮大祀社稷

⁶⁸ 채용석, 「총론-12세기 전반기 정치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9(1993), pp.6-13.

⁶⁹ 『東文選』卷79 記 五冠山聖燈庵重創記.

“오관산 서쪽 봉우리에 창같이 날카롭게 우뚝하게 선 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창바위라 한다. …… 術士가 진언하기를 ‘창바위가 우뚝 선 곳은 지맥이 둘째 번 順龍의 폐간에 해당되는데,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으니 이것은 三災가 일어날 곳으로, 만약 삼재를 없애려면 마땅히 석당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⁷⁰ 朝鮮總督府, 『白雲山內院寺事蹟』, 『朝鮮寺刹史料』上(中央文化出版社, 1968), pp.18-19.

“부처의 도를 약썩으로 삼아 산천의 병든 땅을 치료하십시오. 결합이 있는 땅은 사찰을 창건해 보완하고, 지세가 과도한 곳은 불상으로 누르며, 달아나는 곳은 탑을 세워 머무르게 하고 …”

작지를 빼앗기면서 유망민이 많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지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1149년 무렵 도강군민들은 이러한 재해와 혼란의 원인을 지세가 사나운 월출산으로 상정하고, 월출산의 나쁜 기운이 도강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며, 지역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副戶長 趙某를 중심으로 거군현적인 향도결사를 조직하여 월출산 자락의 월남사터에 2기의 석탑을 조성하였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양식 특징을 파악해보고 석탑의 조성시기와 성격까지 살펴보았다.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단순 모방에 따른 변형”과 “조탑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조형적 왜곡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양식 특징만으로 조성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백제시기, 통일신라기, 후백제기, 고려시대로 나눠 當代 불교미술품과의 비교, 조성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11세기 4/4분기~12세기 3/4분기 사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월남사지에서 발굴된 「(副)戶長趙銘 기와 및 「○○元年己巳北舍瓦草銘 기와와 나주 북암리 3호기와가마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대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1149년 전후에 조성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석탑은 당시 와해되어가던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비보사탑 설에 근거하여 부호장 조모가 거군현적 향도결사를 조직하여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월남사는 백제시기부터 법등이 이어졌는데, 통일신라 말에는 송계선원으로 바뀌어 봉림산문의 심회가 주석하기도 한다. 후삼국기 이 지역을 둘러싼 태봉·고려와 후백제 간 쟁패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등이 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2세기 중엽 삼층석탑 조성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법등이 점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13세기에는 수선사와 연계되었으며, 진각국사 입적 후 그의 탑비가 조성될 만큼 고려시대 불교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월남사지(月南寺址, Weolnamsa Temple Site), 석탑(石塔, Stone Pagoda), 고려시대(高麗時代, Goryeo Period), 향도결사(香徒結社, Town Association),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 Geomantic Theory to complement terrain with Temple and Pagoda)

■ 심사일 2019년 5월 13일 | 심사개시일 2019년 6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9년 7월 4일 ■

참고문헌

1. 사료 및 경전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祖堂集』(K. 1503)
 羅濬, 『寶慶四明志』

2. 한국어 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갑동, 「고려시대의 戶長」, 『한국사학보』5, 고려사학회, 1989.
 金南允,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_____, 「寶林寺 毘盧舍那佛造像記」,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김병인·이바른, 「고려 명종대 監務 파견의 정치적 성격」, 『한국중세사연구』29, 한국중세사학회, 2010.
 김용선, 「玄扈·審希·璨幽와 驪州 高達寺」, 『한국중세사연구』21, 한국중세사학회, 2006.
 김진희, 「康津 月南寺 發掘調査 現況과 成果」, 『康津 月南寺의 伽藍 構造와 眞覺國師 圓照塔碑의 性格』,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7.
 김희태, 「康津 月南寺 銘文瓦와 關聯 記錄의 歷史的 性格」, 『康津 月南寺 銘文瓦의 現況과 性格』,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6.
 南東信, 「深源寺 秀澈和尚 塔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추정탑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5
 _____, 『月南寺址』Ⅰ, 2015.
 _____, 『月南寺址』Ⅱ, 2016.
 _____, 『月南寺址』Ⅲ, 2017.
 _____,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기단부 하부조사 현황』, 2018.
 민현구,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의 음기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36, 진단학회, 1973.
 成春慶, 『全南의 佛象』, 學研文化社, 2006.
 성형미, 「나주 북암리 유적 기와가마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羅州 伏岩里 遺蹟 會津里 栢下遺

蹟(A구간), (財)全南文化財研究院·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申龍澈, 『統一新羅 石塔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申虎澈, 「甄萱의 出身과 社會의 進出」, 『東亞研究』17,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89.

엄기표, 「康津地方의 佛教文化와 月南寺址」, 『文化史學』41, 韓國文化史學會, 2014.

尹京鎮, 「高麗前期 鄉吏制의 구조와 戶長의 직제」, 『한국문화』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李炳鎬, 「康津 月南寺址 出土 百濟 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性格」, 『한국중세사연구』44, 한국중세사학회, 2016.

이병희, 「고려-조선초기 월남사의 위상과 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44, 한국중세사학회, 2016.

이인숙, 「康津 月南寺 出土 銘文瓦의 기와사적 性格」, 『康津 月南寺 出土 銘文瓦의 現況과 性格』,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6.

이인재, 「고려 중후기 지방제 개혁과 감무」, 『外大史學』3,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1990.

李智冠,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_____, 「驪州 高達寺 元宗大師 慧眞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_____,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偏光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

李弘鐘·姜元杓, 『公州 鷄龍山 清涼寺址 試掘調査 報告書』,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1.

(財)全南文化財研究院, 『羅州 伏岩里 遺蹟 會津里 栢下遺蹟(A구간)』, (財)全南文化財研究院·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전용호, 「익산 왕궁리 유적의 사찰 운영에 대한 재검토-왕궁 탑 하부 유구를 중심으로-」, 『歷史學研究』60, 호남사학회, 2015.

鄭炳三, 「深源寺 秀澈和尚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정성권,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의 조성시기와 배경」, 『新羅史學報』31, 新羅史學會, 2014.

鄭恩雨, 「燕岐 佛碑像과 忠南地域의 百濟系 佛像」, 『百濟文化』32,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003.

鄭丁赫·丁珉鎬·千得琰, 「월남사 가람배치에 관한 고찰」, 『百濟研究』68,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18.

朝鮮總督府, 「曹溪山仙巖寺事蹟」, 『朝鮮寺刹史料』上, 中央文化出版社, 1968.

陳政煥, 「全北地域 百濟樣式 石塔에 對한 一考察」, 『國立公州博物館紀要』3, 國立公州博物館, 2003.

_____, 「南原 池塘里 石佛立像 考察」, 『東岳美術史學』8, 東岳美術史學會, 2007.

_____, 「桐華寺 石塔에 對한 考察」, 『桐華寺·銀海寺의 佛教美術』, 國立中央博物館, 2007.

_____, 「井邑地域 百濟系 佛像 考察」, 『文化史學』27, 韓國文化史學會, 2007.

_____,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11, 東岳美術史學會, 2010.

_____, 「統一新羅 鼓腹形 石燈과 實相山門」, 『전북사학』42, 전북사학회, 2013.

_____,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_____,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新羅史學』32, 新羅史學會, 2014.

_____, 「後百濟 佛教彫刻의 對外交渉」, 『百濟研究』61,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15.

_____, 「後百濟의 佛教美術과 그 影響」, 『전북사학』47, 전북사학회, 2015.

_____,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전북사학』53, 전북사학회, 2018.

진홍섭, 『한국의 석조미술』, 문예출판사, 1995.

차인국, 「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 『중앙고고연구』22,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채웅석, 「충론-12세기 전반기 정치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9, 한국역사연구회, 1993.

천득염, 『백제계석탑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崔聖銀,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王宮里 五層石塔 출토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58, 國立中央博物館, 1997.

_____,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先史와 古代』37, 한국고대회, 2012.

최연식, 「月出山の 觀音信仰」, 『天台學研究』10, 天台佛教文化研究院, 2007.

최인선, 「월출산의 불교문화」, 『월출산』, 국립나주박물관, 2015.

崔致遠 撰·崔英成 註解, 『註解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87.

한기문,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 유적을 중심으로-」, 『복원사림』29, 慶北史學會, 2011.

洪大韓, 『高麗 石塔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洪永鎬, 「韓國 三重基壇石塔의 出現과 展開에 관한 試考」, 『文化史學』10, 韓國文化史學會, 1998.

강진 월남사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있는 사지로, 보물로 지정된 삼층석탑과 보조 국사 지눌의 제자인 眞覺國師 慧心의 비가 남아 있으며, 최근 수년간 발굴이 계속되면서 그 전모가 속속 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3층석탑만은 여전히 후백제시기부터 진각국사 생존 시기까지 등 그 조성시 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등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월남사지 삼층석탑 조성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이유는 “단순 모방에 따른 변형” 내지는 “조탑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형적 왜곡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식 특징만으로 조성시기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제시기, 통일신라기, 후백제기, 고려시대로 나눠 當代 불교미술품과의 비교, 조성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11세기 4/4분기~12세기 3/4분기 사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 으며, 특히 월남사지에서 발굴된 「(副)戶長趙銘」기와 및 「○○元年己巳北畬瓦草銘」기와와 나주 북암 리 3호기와가마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연대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1149년 전후에 조성되 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석탑은 당시 와해되어가던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裨補寺 塔說에 근거하여 副戶長趙某가 擧郡縣的 香徒結社를 조직하여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컨대, 월남사는 백제시기부터 법등이 이어졌는데, 통일신라 말에는 송계선원으로 바뀌어 봉림 산문의 심회가 주석하기도 한다. 후삼국기 이 지역을 둘러싼 태봉·고려와 후백제 간 쟁패 때문에 일시적 으로 법등이 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2세기 중엽 삼층석탑 조성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법등이 점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13세기에는 수선사와 연계되었으며, 진각국사 입적 후 그의 탑비가 조성될 만큼 고려시대 불교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Dating and Construction Background of the Three-Story Stone Pagoda at Weolnamsa Temple Site at Gangjin

Jin, Jeong-hwan*

Weolnamsa Temple site is situated in Weolnam-ri, Seongjeon-myeon, Gangjin-gun, Jeollanam-do. A three-story stone pagoda, designated as a Treasure, and a stele of the National Preceptor Jingak Hyeshim(1178-1234) stands at the site. As excavations have continued for the last few years, the original appearance of the temple is being revealed. However, the three-story stone pagoda is not yet fully understood, even the opinions on its construction date varying from the Later Baekje period to the time of Jingak Hyeshim.

The confusions in the previous attempts at dating the pagoda are due to the unconventional style of the monument, likely caused by “imitation without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when raising the pagoda. As it is hard to date the pagoda based only on stylistic analysis, comparisons with other periods—Baekje, Unified Silla, Later Baekje, and Goryeo—, and analysis of its historical background were made in this study.

The construction date of the pagoda can be put to the period between the last quarter of the 11th century and the third quarter of the 12th century. A roof tile, excavated at the site further narrows down the date. It was inscribed with the words, “Deputy Village Headman Cho” and “First Year of [missing], Year of Gisa.” As a roof tile of the same shape, marked with the same name of the “Deputy Village Headman Cho” was found inside the Kiln No. 3 at Bokam-ri, Naju-shi, whose date was determined by archeomagnetic methods, the roof tile and the pagoda can be dated to around 1149. Moreover, this roof tile serves as an evidence that the pagoda was likely made by a

* Curator, Gwangju National Museum

Town Association headed by the Deputy Village Headman, named Cho, as an attempt to rebuild and consolidate the regional community, based on the Geomantic Theory to complement terrain with temple and pagoda, of the late Unified Silla.

In conclusion, the site of Weolnamsa Temple was a place of Buddhist worship since Baekje period. It was named as Songgye Meditational Hall in the late Unified Silla and led by monk Simhee of *Bongrimsanmun*. In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its religious functions were temporarily lost as the area was at the center of power struggles between Taebong(later Goryeo), and Later Baekje. However, as the pagoda was erected in the mid-12th century, the site was re-established as a place of worship and connected to Suseonsa Temple by 13th century. The importance of this temple in Goryeo Buddhism is evident in the fact that a stele of Hyesim was erected at the temple after his death.